

# 신종 코로나에 총선 후보들 '난감'...손하트에 눈인사만

### 약수나 대화 자제,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취소 외부활동 대신 SNS 활용 선거운동으로 재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대응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평소에는 시민들과 약수를 나누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우한폐렴이 발생하면서 가능한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있다.

약수보다는 손하트나 허리를 숙

이는 인사법으로 바꿨고 상가나 전동시장 방문 등 대외활동을 줄이고 SNS 홍보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얼굴도 마스크로 가리고 장갑까지 끼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도 대외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능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줄이고 전화나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 출마를 선언한 장판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신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명진 예비후보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30일 장판채 예비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약수대신 인사를 하고 있다.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약수를 청하지 않고 지지자 여러분께 인사로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한 전진숙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2월 1일로 예정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김원이 민주당 예비후보도 2월 8일로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에 출마한 민형배 민주당 예비후보는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실시, 손세정제 비치, 선거운동 시 약수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우한 폐렴 대응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했다.

## 興 영입인재 15호 '우생순' 임오경...“文대통령 존경해 입당”

### 한국 여자핸드볼 전설이자 유리천장 뚫은 여성지도자



영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인 한국 여자 핸드볼의 전설 임오경 전 감독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15번째 영입인사가 됐다.

임 전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 환영회에서 "우리 정치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은 임오

경"이라며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듯, 이제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감독은 한국 국기종목 역사상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핸드볼 국가대표에 발탁된 임 전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스타다. 결혼과 출산으로 7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 2003년 세계선수권 대회 3위를 차지하며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편파 판정에 시달리면서도 투혼을 발휘해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감독 스토리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돼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임 전 감독은 1995년 일본 여자 핸드볼 리그 소속 히로시마 메이플 레즈 플레이 감독으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임 전 감독은 2부 리그 팀을 잘 조련시켜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이후 리그 8연패를 이끔며 지도자로

명성을 쌓았다. 2008년 창단한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한국 국기종목 최초 여성 지도자가 됐다.

임 전 감독은 왜 민주당을 선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짓없이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존경했다"며 "스포츠계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고향인 전북 정읍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임 전 감독은 "정읍은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 (현역 의원인) 유석열 의원도 제가 좋아하는 친오빠 같은 분"이라며 "제 고향이고 제가 존경하는 오빠이기 때문에 아직 정읍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윤희 전 수영 선수가 임명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직을 민주당 입당을 위해 거절했느냐는 질문에는 "최윤희 선배가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꼭 이 자리에 서기 위해 (포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며 "선배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양보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 천정배 "신종코로나 대응, 남북 방역협력 해야"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간 방역 협력과 의료용품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

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대화의 형식, 절차, 창구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남북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 요청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靑인사 등 13명 기소에 민주 "80년대 날조사건 보는 듯"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무더기 기소에 대해 "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랄지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백

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윤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